



한울림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5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미경(태국)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찬 286)

다같이

그 사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조병기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예베소서 6:1-4

다같이

아버이의 사랑

사마임찬양대

“온전한 부모, 자녀 관계의 회복은

김원재

주님의 뜻입니다.”

미더워라 주의 가정(찬 558)

다같이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주님 안에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70세 이상)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못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과 함께 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예배 후 아버지주일을 맞이하여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현장예배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김희석)
4.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표를 작성했으니, 자신이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예배에 못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5. QT책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박순정)
6.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레푸기움 - 차유미 -

류시화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보면 ‘레푸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피난처, 휴식처’의 의미입니다. 원래 레푸기움은 빙하기 등 여러 생물종이 멸종하는 환경에서 동식물이 살아남은 장소를 말하는데 빙하기때 살아남은 생물처럼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곳, 그 곳을 ‘레푸기움’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레푸기움, 자신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분산된 감각을 달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레푸기움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을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휴식이 되고 편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시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가운데 레푸기움,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어딜가든 사람이 너무 많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레푸기움을 찾아야 할까요? Refugium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독일어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시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올 때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는 레푸기움안에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나 다운 모습으로 보게 해주시는 분.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하라고 그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야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아깝습니다. 매일매일의 웃음을 더 많이 기억하고 싶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납니다.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아이들은 알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바라보던 부모님의 시선도 같았겠지요.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푸기움,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